

<서평>

**베트남 이해를 위한 종합적이고 충실한 안내서**  
배양수, 『베트남 문화의 즐거움』, 서울: 스토리하우스, 2018.

이 한 우\*

현재 베트남은 한국인들로부터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교역과 투자를 포함한 경제관계, 관광 등을 통해 이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자연스런 결과다. 더불어 양국 역사와 문화의 유사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에, 상대국을 알리고 하는 관심이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베트남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부응하여 베트남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종합적 안내서가 출간되었다. 부산외대 배양수 교수가 『베트남 문화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낸 책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적었듯이, 한국과 베트남 간에 인적 교류가 많지만 우리가 아직 베트남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에, 이 책은 베트남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1988년 10월 타이항공을 타고 방문한 첫 베트남행의 소감을 적었다. 호찌민시의 떼선녓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문을 나서려는

---

\* 서강대 동아연구소 및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조교수, asia@sogang.ac.kr.

순간 트랩 위에 슬라이퍼를 신고 AK 소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을 만나 깜짝 놀랐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방콕의 돈무앙 공항과 대비되는 땀 선뉘 공항 대합실의 초라한 모습은 첫 발을 딛는 저자를 무척 당혹스럽게 했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항 직원들이 여행객의 가방을 손으로 날라다 공항 바닥에 부러 놓았으니 가관이었을 것이다. 이런 베트남이 불과 이, 삼 십년만에 세계의 주목을 끄는 성장하는 국가로 발전했으니, 그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베트남의 국가 개황과 자연지리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한다. 북부 하노이로부터 남부 호찌민시까지 거리가 인천공항에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까지 가는 거리만큼 비행기로 두 시간 가까이 걸리니, 베트남이 이렇게 긴 영토를 가진 국가가 된 것은 뭔가 독특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베트남이 풍부한 농수산물 생산을 자랑하는 국가며 많은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커피, 한치, 주꾸미, 새우 등 베트남의 농수산물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베트남이 세계 커피 생산 제2위, 수출 제2위 국가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이 수입하는 커피의 중량 기준으로 한 1/3은 베트남으로부터 들여오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베트남 커피를 맛본 셈이다.

저자는 제2장에서 베트남 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베트남이 54개 종족으로 구성된 다종족 국가라는 것을 아는 이는 많다. 킨(Kinh) 또는 비엣(Viet)이라 일컫는 종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와 사회의 지배적 역할을 한다. 소수종족들은 저지대에서 밀려나 산간지역으로 이동하든가 메콩 델타 변방지역으로 이주해갔다. 따라서 단일한 “베트남 문화”가 존재하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는 도시화로 인해 북부와 남부의 사회가 점점 더 공통점을 많이 갖게 되었으나 전반적 사회 분위기에서 차이는 느껴진다. 남부는 이주자들이 많은 관계로 좀 더 개방적 분위기를 띠며, 북부가 좀

더 공동체성이 강한 문화를 갖는다.

이어 저자는 제3장과 4장에서 다채로운 생활 풍경을 그리고 다양한 생활 문화를 소개한다. 이 두 장만 읽어도 이 책 전체를 읽은 것과 진배없다. 이 두 장으로 베트남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책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제5장에서 베트남 문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문학전공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 하나로도 베트남문학 개설서 한 권의 역할을 할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 책은 이어 역사, 정치, 경제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이어지며,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설명과 주요 여행지 소개로 마무리된다.

이 책의 장점과 보완하기를 바라는 점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단지 베트남 공부에 입문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베트남을 연구하고 있거나 베트남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베트남 생활 문화에 대한 설명은 매우 상세하여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반면 문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입문자에게는 너무 심도 있게 느껴져 그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있다. 더불어 저자가 고려하면 더 좋았겠다 싶은 것은 변화하는 문화와 현대 사회의 문화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면 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는 늘 변화하기에,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간 격차가 벌어지게 마련이며 도시일수록 그 변화는 더 빠르다. 전통 문화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간략히 하고 현대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다.

문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양면성을 띤다. 저자가 문학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다룬 것은 매우 큰 성과다. 그간 한국 내에서 베트남 문학 전반을 다룬 책은 한문학자 최귀묵(2010) 교수

의 연구서 정도였다. 그러나 입문서에서 상세히 설명하다보니, 독자들에게 문학의 재미를 갖게도 하지만 문학사 이해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면도 있다. 이 책의 2판에서 이를 줄이며 좀 더 흥미롭게 서술하고, 현재 제5장 베트남 문학기행 장은 확대하여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를 권유하고자 한다. 저자가 본인의 책에서 응우옌후이 티엠편의 “퇴역장군” 등 현대 베트남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는 문학작품을 소개한 것도 매우 유익하다. 문학부문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자가 베트남 문학작품을 여러 편 한국어로 번역해 냈는데 그 중 베트남 현대사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 작품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호앙 밍 뜨엥의 소설 『시인, 강을 건너다』이다. 이 소설은 현재 베트남 내에서는 판매 금지된 상태다. 서평자도 이 소설을 매우 감명 깊게 읽고 이 소설을 알 수 있게 해준 번역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 소설은 베트남이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분단국이 된 후 북부에서 토지개혁이 시작되는 때부터, 베트남전쟁, 통일 과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베트남 현대사를 기술하면서 현대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의 연원들을 드러내준다.

제6장 베트남 역사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되어 있어, 베트남의 긴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미흡하다. 물론, 저자가 역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책에서 길게 다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베트남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이기에 역사에 관한 설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유인선(2018) 교수가 정년퇴임 이후에도 정력적 학문 활동을 통해 펴낸 베트남 역사책처럼 역사적 사실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술해 주면 좋겠다. 이 책은 매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들이 베트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판은 더 훌륭한 입문서가 되리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 유인선. 2018. 『베트남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산.  
최귀묵. 2010. 『베트남문학의 이해』. 파주: 창비.  
호양 밍 뜨엥. 배양수 역. 2015. 『시인, 강을 건너다』. 서울: 도서출판 b.

